

귀농귀촌 1번지 위상 확인

남원시, 올해 702가구 1015명

남원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면서 올해 702가구 1,015명이 남원에서 제2의 인생을 출발했다.

이는 남원시가 올해 계획했던 500가구 유치 목표를 140% 초과 달성한 것으로 귀농귀촌 1번지 남원의 위상을 재확인했으며, 이처럼 도시민들이 남원을 찾고 있는 것은 지리산과 삼진강을 품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판소리, 국악 등 예술이 어우러진 문화도시, 건강한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남원시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농촌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 도시민 귀농학교, 귀농귀촌학교, 여성 귀농학교 등 귀농귀촌인들이 희망하는 맞춤형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230여명에게 제공하였으며, 특히 '여성 친화도시 남원'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여성 귀농귀촌인만을 대상으로 한 여성 귀농학교를 진행해 '여성'이라는 연결고리를 가진 인적네트워크 형성



남원 체재형 가족실업농장 조감도

에 크게 기여했다. 정착지원 사업으로 이사비(100가구/1억원), 자녀정착금(40명/2천만원), 주택수리비(40가구/2억원), 창업자금(54가구/용자94억원), 주택자금(15가구/용자10억원)을 지원, 초기정착단계에서 겪는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체재형 가족실업농장에서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체계적인 영농교육 및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 11월 국가보조금 10억 4천만원 등 총사업비 41억원을 투입한 주천지

구 숲속전원마을이 준공됨에 따라 귀농귀촌 가구 41세대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입주할 수 있게 됐으며, 소규모 숲터 2곳을 산내면과 덕과면 각각 조성하고, 귀농인의 집 13개소도 운영하고 있다.

이준무 농정과장은 "내년부터는 마을이장·노인회장 등 지역리더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이해 프로그램, 갈등관리 멘토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귀농귀촌인들과 지역민의 상생융합을 도모하고 역귀농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포용적 복지 예산안 599억원 편성

순창군이 내년도 주민복지예산안에 모두 599억원을 편성해 군 의회에 상정 심의를 요청했다. 이 같은 예산안은 524억원 보다 12.4%가 증가된 75억원으로, 내년도 군 전체예산 3,800억원의 16%에 달하는 수치다.

어르신 노인복지예산분야에 346억8천만원으로 58.3%를 차지하며, 장애인 복지증진에 58억5천만원으로 9.7%,

보육 및 청소년 보호예산은 98억4천만원으로 16.5%, 기초생활보장비에 53억5천만원으로 9%, 여성능력 개발과 권익향상에 3억3천만원 등이다. 화장장리금은 1구당 25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실비를 전액지원하며 기초연금은 30만원까지 인상하고, 경로당 급식도우미사업은 현재는 동절기 4개월만 운영한 것을 농번기2개월을 추가해 6

개월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및 장애연금 지급연가 인상, 아동수당 시행 등 관련사업의 국비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황숙주 군수는 "내년에도 주민복지 위한 예산이 사각지대 없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되어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지방하천정비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남원시가 전북도에서 실시한 '2018년 지방하천정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도내 14개 시 군을 대상으로 지방하천에 대한 제방, 호안, 하상정비와 가동보 관리, 하천내 불법행위 단속 등 하천유지관리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남원시에서는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39개소, 소하천 347개소 등 법정하천 388개소의 크고 작은 하천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하천에 9억2천만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14억7천만원의 예산과 재난관리기금 1억원 등 총 25억여원을 투입해 재해가 우려되는 하천을 사전에 정비하였고, 제

방과 수문 등 하천시설물의 위험여부를 정밀 안전진단해 꾸준히 보수해 왔다.

시 관계자는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남원시의 뛰어난 하천 유지관리에 대하여 인정받는 계기가 됐으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천관리에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주요 도로변 꽃양배추 등 겨울꽃 식재

임실을 주요 도로변이 겨울꽃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사계절 꽃피는 거리조성을 위하여 주요 요시가지 곳곳에 지난 봄부터 지속해서 계절별 꽃을 식재해 왔다. 총 2500만원의 예산으로 꽃박스 950개에 8,817본의 겨울꽃 식재를 모두 마무리

했다. 눈 속에서도 아름다운 과시하는 겨울대표 수종인 꽃양배추를 2가지 크기와 3가지 색깔로 다양하게 식재했다.

심민 군수는 "겨울철에도 활기찬 거리환경조성으로 더욱더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꽃들을 식재했다"며



"사계절이 아름다운 임실을 만들어서 관광객과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이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기초연금 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

기초연금사업 도내 유일 우수기관 선정

임실군, 효자 기초연금 수행·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임실군이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기초연금 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임실군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지자체 평가대회에서 어르신 효자정책의 일환인 기초연금 정책을 잘 수행한 우수시군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기초연금지자체 평가대회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2곳을, 226개 기초지자체 중 10곳을 선정하는 것으로 매우 경쟁률이 치열한 부문 중 하나다.

임실군은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전국 10곳 지자체 중 한 곳으로 선정되는 기쁨을 토했다. 여기에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 관리 신청률, 과외지급금에 대한 환수율 등 10여개 항목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거쳐 우수시

군을 선정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제를 100% 실시하고, 기초연금 전국강사 활동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점이 높게 평가되어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기관 수상은 평소 '어르신들이 행복한 효심행정'을 강조하는 심민 군수의 효심행정의 결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심민 군수는 "앞으로도 기초연금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다양한 효심정책을 발굴, 실천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노인복지관과 임실군은 송년 작품발표회를 개최했다.

임실군, 노인복지관 송년 발표회

임실군노인복지관과 임실군 북부권노인복지관은 최근 임실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제5회 송년 작품발표회' 및 자원봉사자 후원자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진두 부군수를 비롯해 유관기관 단체장, 지역주민 등 약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박진두 부군수는 "지금 우리의 풍

요롭고 안락한 생활은 어르신 여러분의 희생과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한갑수 관장은 "어르신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질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답하겠다"며 "한 해 동안 자원봉사활동과 후원해준 주민과 단체에게 깊은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군, 행복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본격 시동

순창군이 2020년 농식품부 소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분야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으로 총 6개 마을에 30억 원 규모로 신규 공모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마을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모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내년도 2월 11일까지 제출하게 된다.

이와 관련 순창군은 지난 10일 군청 회의실에서 각 마을 추진위원회 및 행정, 용역사, 순창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한 자리에 모여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상호

효율적인 역할분담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향후 공모사업 평가와 관련한 세부일정 수립과 대응방안, 신규사업 발굴 방향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순창군은 올해 신규공모사업으로 9개 마을에 45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마을단위 사업으로 총 24개 마을에 134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점은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도 돋보이는 성과다. 군은 향후 주민이 행복한 마을만들기를 위해 매년 역량강화를 통해 공동체식 강화와 네트워크 활성화, 주민편의 증진사업과 섬터조성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중앙지구대 치안활동

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 중앙지구대(대장 이동권)는 최근 겨울방학 전 아동안전지킴이와 함께 관내 초·중학생 대상 공동체 치안활동을 실시했다.

이날은 하교시간에 귀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차량 탑승 시 안전벨트 착용, 야간엔 밝은 옷 입기 등 교통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아동안전지킴이와 함께 관내 청소년에게 유해물품을 판매하는 곳이 있는지 점검하고, 청소년들의 탈선이 일어날 수 있는 우범지역을 면밀하게 순찰하는 등 청소년 범죄에 대한 선제적 제압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동권 중앙지구대장은 "방학이 가까워질수록 느껴지는 연말분위기에 방심해선 안 된다며, 아동 및 학생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남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